●'ACC 어린이문화원' 새단장

상상의 날개가 쑥~쑥~

"상상을 현실로, 미래를 여는 창작 놀이터! 최첨단 기술로 새단장한 ACC 어린이문화원으로 놀러오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17일 "ACC 어린이문화원 콘텐츠 및 관람환경 개편을 완료하고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어린이문화원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융복합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변모했다. 여기에 노후화된 공용 공간 개선과 관람 동선 개편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도서관·체험관 등 첨단기술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눈길'

전시·교육 연계 문화상품 가득‥메타버스 어린이체험관도

상품점 '들락키즈'(위), '와글와글 도서관'

◇편의·휴게 시설 등 관람객 친화적 공간 조성

이번 어린이문화원 개편에서는 분산 운영하던 안내·매표·물품대여소를 로비 중앙에 통합 배치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대했다. 이동 동선에 따라 아기쉼터, 물품보관함 등 편의·휴게 시설도 확충했다.

공간 개편에 맞춰 어린이문화원을 대표하는 디자인을 신규 개발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내 시스템도 구축했다.

안내 시스템 디자인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창'이라는 ACC 비전과 ACC 건축의 상징인 '기억의 빛'을 모티브로 창의성, 예술성,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 어우러지는 어린이문화원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어린이 특화 문화상품 가득…'들락키즈'

어린이문화원 로비에는 ACC 어린이상품점 '들락키즈'가 새롭게 문을 열고 다양한 어린이 특화 문화상품을 소개한다.

어린이문화원 전시와 교육 등 콘텐츠 연계 상품과 아시아 스토리 기반 그림책 등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상품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ACC 어린이문화원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을 활용한 교구재와 놀이·문구·도서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책과 첨단기술의 조화…신나는 놀이터 '와글와글 도서관'

기존 어린이도서관은 책을 즐기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를 배려한 '와글와글 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을 넘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와글와글 도서관의 '반짝반짝 이야기'에서는 SK텔레콤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일기를 창작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림책 세상으로 모험…'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전도 열린다. 내년 3월3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개최하는 그림책 체험전시 콘텐츠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이다.

이번 전시는 ACC재단과 3D 융합콘텐츠 전문기업 ㈜인디고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 체험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함께 기획한 체험형 콘텐츠다.

ACC재단이 발간한 그림책 5권 속 이야기를 실감형 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했다.

전시에서는 ▲호수 속 여왕의 장신구 찾기 ▲구름 친구로 변신해보기 ▲암각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아시아의 옛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

또 전시장 곳곳에 비치된 그림책과 자율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시는 유료로 진행된다.

◇메타버스로 즐기는 아시아 문명탐험

어린이체험관에는 '메타버스 어린이체험관(ACC CHILDREN LAND)'이 새롭게 구축됐다. 가상현실 세계에서 아시아 문화를 경험하도록 개발된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식과 문명' 전시와 메타버스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재미와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더스·이집트 문명과 필리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중앙아시아의 이동식 집 '유르트' 등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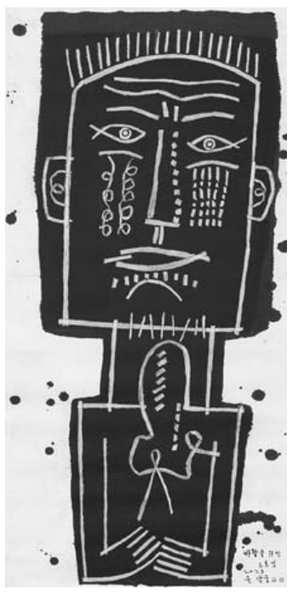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문화원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배우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수묵으로 전하는 인간 내면의 울림

●윤남웅 초대전 '바람을 위한 드로잉'

2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바람'을 주제로 자연의 흐름과 내면의 사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묵 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윤남웅 작가 초대전 '바람을 위한 드로잉'이 오는 2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진도 출신인 작가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오며 1990년대까지 색채가 무거운 풍속화를 통해 수묵의 깊은 맛과 함께 묵직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꽃상여를 모티브로 한 화려한 색채와 해학적인 그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진도에서 작업한 단색화를 선보인다. 기존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풍으로, 한지 위 수묵 기법으로 자연과 인간의 내면적 관계에 집중한 결과물을 펼쳐낸다.

전통 한국화에 뿌리를 두면서도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온 작가는 자연 속 발견되는 생명력과 감정적 울림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지의 질감과 수묵 번짐이 어우러진 이번 신작들은 관람객들에게 미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헌기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대표는 "윤남웅은 광주 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고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중학생 감독의 빛나는 데뷔 무대

'2024 중딩영화제' 내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센터)가 미디어·방송 분야 꿈나무 발굴을 위한 '2024 중딩영화제'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한다.

중학생 청소년을 위한 영상 공모전으로, 학교에서 진행된 미디어교육의 결과물과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영상 창작 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다.

올해는 호남권을 비롯해 서울·강원·제주 등 전국 16개 권역에서 10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드라마·영화 장르가 주로 접수됐으며 ▲딥페이크 ▲학교폭력 ▲우정 ▲학업 스트레스 등을 다뤘다. 1·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비롯한 4개 부문 수상 결과가 행사 당일 발표된다.

시상 부문은 대상에 방송통신위원장상(1팀), 최우수상에 광주시교육감상(2팀)과 전남도교육감상(2팀)이, 우수상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4팀), 장려상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상(4팀)이 수여되며 총 500만원 상당의 부상도 지급된다.

이날 행사는 역대 중딩영화제 수상자 4팀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부문별 시상이 진행된다. 울산·대전·제주 등 전국 각지 수상팀이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한다. 모든 행사는 광주센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이상훈 심사위원장(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완성해 나가기 바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